



HOME > 사회 > 사회종합

창원레포츠파크 노사,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펼쳐

✎ 이은수 | ☎ 승인 2026.07.12 15:49

창원레포츠파크 노사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시민과 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예상원)는 노동조합(위원장 윤종석)과 함께 지난 10일 창원레포츠파크 서문 출입구와 사업장에서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동아오츠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안전보건 활동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폭염 중점 예방기간'에 맞춰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레포츠파크를 찾은 시민 900명과 수급업체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로자 100여 명 등 모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며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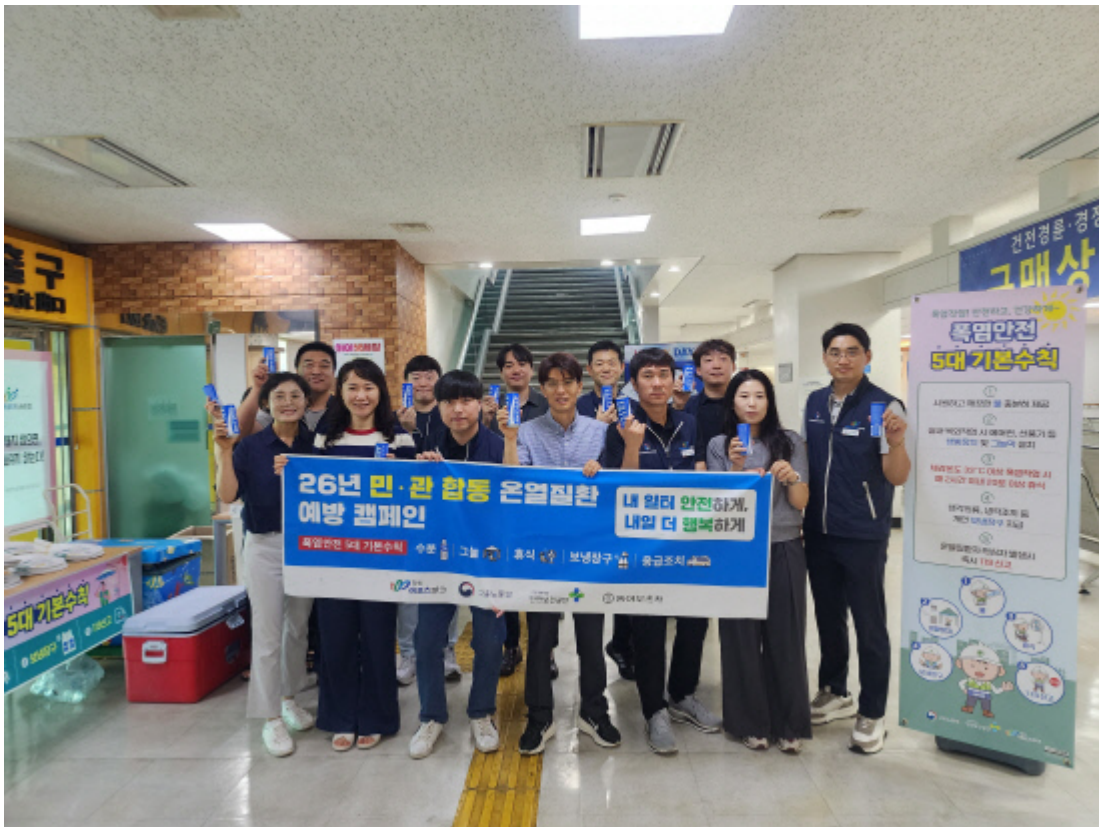
참가자들에게는 이온음료와 포도당 캔디, 손선풍기, 부채, 안전 리플릿 등 폭염 예방 물품도 함께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창원레포츠파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폭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예방기간 동안 부서별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에게 수분과 전해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상원 이사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며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현장 관리를 통해 사업장 내 온열질환 발생 ‘제로(Zero)’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레포츠파크는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news.co.kr



예상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과 윤종석 노동조합 위원장,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은수

저작권자 ©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